

[KOSPI]

8,303.41

-2.04%

시그널: 외국인·기관 대규모 매도

[KOSDAQ]

929.35

+1.44%

시그널: 개인 매수 및 소부장 강세

[NASDAQ]

26,213.72

+1.52%

시그널: 2분기 누적 21% 급등

[US 10Y]

4.537%

+5b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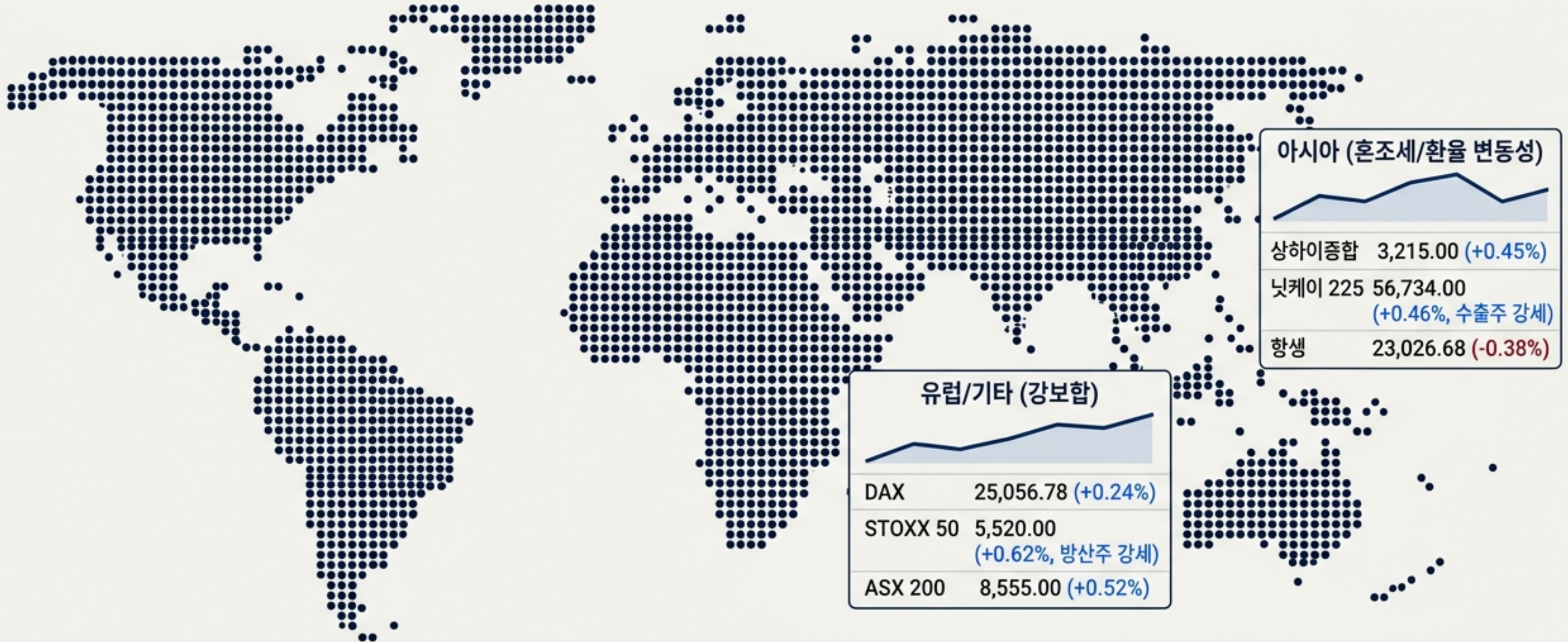
시그널: FOMC 매파 기초

2026.07.01 야간 브리핑: 반도체의 숨고르기와 극명한 디커플링

KOSPI-KOSDAQ의 엇갈린 수급, 그리고 나스닥 독주 이면의 매크로 역학

하반기 첫 거래일, 글로벌 AI·반도체 랠리가 숨고르기에 진입한 가운데, 국내 증시는 대형 반도체 투매(KOSPI)와 장비·성장주 반란(KOSDAQ)으로 극명하게 분리되었습니다. 미국 고용 지표 대기 속 롤러코스터 장세가 전개 중입니다.

Global Macro Radar: 7조 달러 랠리 이후의 숨고르기



[상반기 회고]

AI·반도체 주도 랠리로 글로벌 시가총액 약 7조 달러 폭증.
나스닥 상반기 11~12% 상승 기록.

[현재 국면]

17년 만에 최고 분기 성과를 거둔 아시아 증시는 현재 랠리 후
'숨고르기' 국면.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.

Domestic Divergence: KOSPI 투매 vs KOSDAQ 반란

[KOSPI] 8,303.41 -2.04% 급락

수급 주체

외국인(-337.8만주),
기관(-185.6만주) 쌍끌이 매도 

주도 섹터

대형 반도체 매물 출회 및
방어주(보험, 건설) 피신

핵심 모멘텀

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거진
반도체 재고 소진 우려

[KOSDAQ] 929.35 +1.44% 강세

수급 주체

개인(+518.3만주)의 압도적
순매수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

주도 섹터

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, 연료전지,
전선, 위메이드 등 성장주 베팅

핵심 모멘텀

9~10월 '코스닥 세그먼트 제도'
도입 추진 및 하반기 회복 기대감

The Drag of Big Tech: 지수를 짓누른 반도체 투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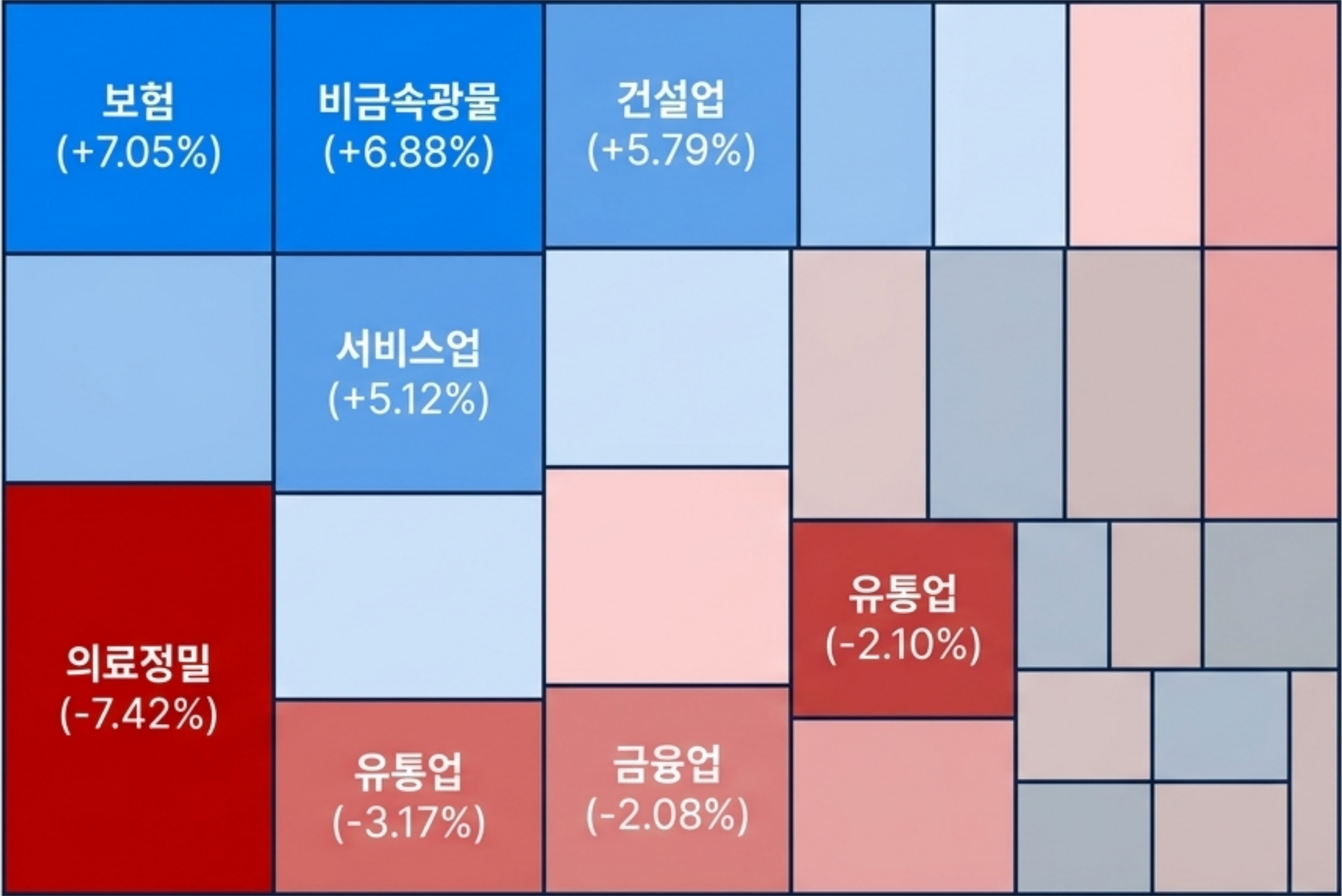
[Insight]

KOSPI 시가총액 1,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~5%대 급락하며 지수 전체를 -2.04% (8300선)까지 후퇴시킴.

**“반도체가 끌어올린 지수,
반도체 매물이 다시 끌어내리다.”**

-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 직격탄

Sector Rotation: 리스크-오프(Risk-off) 자금의 피난처



방어 및 내수 섹터 급등

반도체 불확실성 회피 자금이
보험 및 건설 등 전통적
방어주로 대거 이동.

금융/유통의 소외

금융업은 최근 1주간 -5.91%
하락하며 약세 지속.

US Market Dynamics: 나스닥의 질주와 주도권 균열 조짐

NASDAQ	S&P 500	DOW JONES
26,213.72 +1.52% 2분기 누적 21% 급등	7,499.36 0.00% 보합세	52,319.20 +0.26%

미국 주요 섹터 등락률



Market Synthesis

[매크로 영향]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발생 -> S&P 선물 소폭 하락 불구 나스닥 홀로 강세.	[수급 동향] 서학개미(국내 투자자) 3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. '지수 빠지면 산다'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매수세 지속. 바클레이스는 주도권 균열 조짐을 경고.
---	--

Deep Dive: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나스닥 75,000pt 시나리오

Momentum Bridge

Stage 1

한국 증시의 약세

**SK하이닉스 주가
-3.40% 하락**

(차익 실현 및 재고 우려 반영)

Center Box

나스닥 등록서 수정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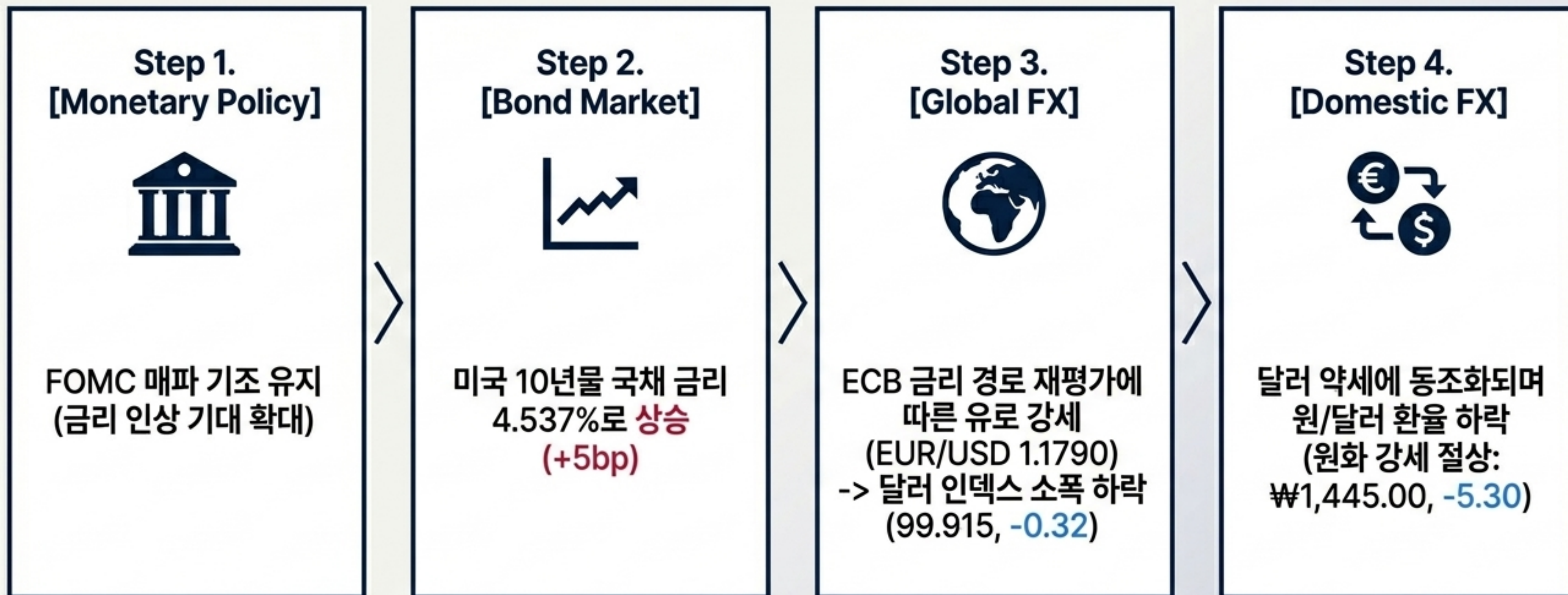
- 1,1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
- EUV(극자외선) 장비 전면 도입 공식화

Stage 3

미국 시장의 기대감

- 나스닥 기술주 전반에 강력한 AI/반도체 인프라 투자 지속 시그널로 작용.
- 일부 분석가, 스페이스X를 능가하는 모멘텀으로 평가하며 '나스닥 7만 5천 포인트' 도달 가능성 제기.

FICC Transmission: 매파적 FOMC가 원화에 미치는 나비효과



핵심 요약: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가 달러를 압박하며, 결과적으로 원화 절상이라는 엇갈린 환율 환경을 조성함.

Commodities & Crypto : 전통 자산의 불안과 대체 자산의 유입

WTI 원유

\$64.89 **+\$2.62**



OPEC 감산 연장 기대감으로 당일 상승했으나,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2분기 38% 급락. 미·이란 협상 대기 및 심각한 '공급 과잉' 전망으로 구조적 하방 압력 지속.

금 (Gold)

\$500 **+\$18**



안전자산 선호로 소폭 반등. 그러나 기술주 중심의 미 증시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 콤보가 가격 상단을 강하게 억누르는 중.

비트코인 (BT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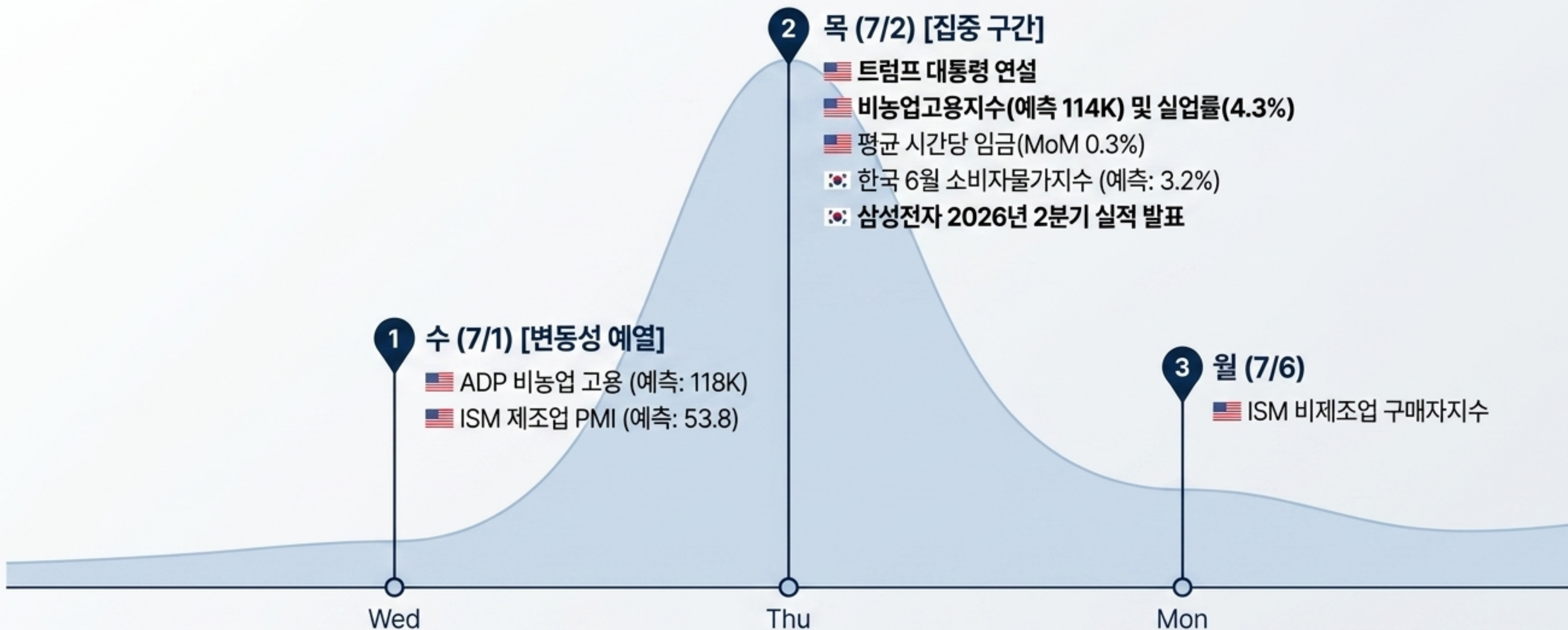
\$500 **+\$1,240**



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순유입이 지속되며, 실물 자산의 불확실성 속에서 독자적인 랠리 형성.



The Week Ahead: 변동성의 정점은 '목요일'을 향한다



Insight Box

고용 한파 여부(실업률 4.3% 유지 여부)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맞물리는 7월 2일(목)이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.

Strategic Takeaways: 3대 핵심 관전 포인트 및 포트폴리오 전략



방어 (Defense - 하방 리스크 헤지)

트리거

외국인 매도세 지속 및 반도체
재고 소진 우려.

액션

KOSPI 8300선 이탈 가능성에
대비한 방어주(보험, 내수) 비중
확대 고려.
달러 약세 및 원화 절상 국면에
맞춘 수출주 환차손 리스크 점검.



기회 (Opportunity - KOSDAQ 알파 창출)

트리거

9~10월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 개편
및 하반기 반도체 장비 턴어라운드.

액션

투매가 일어난 대형주 대신, 견조한
매수세가 확인된 소부장(소재 ·
부품 · 장비) 및 연료전지 등
코스닥 성장주 중심의 선별적 편입.



관찰 (Watch - 매크로 변동성)

트리거

미국 10년물 금리 상승(+5bp)과
이번 주 집중된 고용 지표.

액션

목요일(7/2) 발표될 미국 실업률
(4.3%)과 삼성전자 Q2 실적 발표
결과 확인 전까지 레버리지 축소.
SK하이닉스의 EUV 모멘텀이
이끄는 나스닥 강세 지속 여부
트래킹.